

5·18민주화운동, 시민·국민과 함께 우뚝 세워야 한다

의정단상



정다운
광주시의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5·18과 참가자를 모욕하고 오월정신을 훼손한 지만원이 지난달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필자는 시의원이 되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원이자 광주 변호사로 약 7년간 5·18을 공격하는 세력에 법률 대응을 해왔다. 필자뿐만 아니라 광주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만원 등 역사 왜곡 세력을 상대로 거의 매년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처럼 오월정신을 지키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모여 마침내 지만원이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필자는 충분히 기뻐할 수 없었다. 지만원을 지지하고 그의 활동을 따라하는 새로운 역사왜곡 세력이 매일 같이 생겨나고, 지만원이 물러나야 할 손해배상소송의 판결금은 그의 망언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낸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5·18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광주가 지켜본 그날의 판결이 80년 5월 광주에 관한 역사적 사

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왜곡하고 오월정신을 흐드는 자들은 끊임없이 생겨났고 결국 2021년 1월에는 5·18 역사왜곡처벌법까지 시행되게 됐다. 5·18을 지켜내기 위해 아직도 온 힘을 다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광주... 이런 내 고향 광주가 참으로 애달프다.

필자는 광주의 오월정신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추앙받는 존재로 우뚝 서기를 소원한다. 그러나 그 길은 무척 고될 것으로 보인다. 5·18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1980년 5월의 광주,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5·18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해마다 5월이면 광주에서는 5·18기념식을 비롯해 각종 추모 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그 행사를 지켜보는 광주시민이나 국민들의 속내는 다소 복잡해 보인다.

동향의 사람들이 겪었던 살을 에는 고통을 외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세상살이가 어렵다 보니 한정된 자원이거나 기회가 5·18 당사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을 가슴에서 지울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또 광주 밖으로 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 이념대립을 계속하는 자들에게 5·18은 공격하기 좋은 먹잇감이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좋은 소재다. 그들은 국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 파고 소금을 뿌려댄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가해지는 공격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5·18이 돼야 다음 세대에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 우리는 5·18이 국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오월정신을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와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5·18은 몇몇 광주시민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란 굳이 번거롭게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모두의 의견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51%의 찬성만 있으면 마치 그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최선의 결정인 것처럼 힘을 갖는다. 하지만 5·18에 관한 결정만큼은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모두 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5·18에 대한 무관심과 공격은 관심과 공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지켜나가려 노력하는 소중한 민주주의 정신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는 6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진상 조사의 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가 공개된다. 국가공인보고서의 발표를 목전에 둔 지금은 광주만의 5·18이 아닌 우리 모두의 5·18로 도약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때다. 필자는 시민과 함께 굳건한 5·18을 위해 느리지 않은 걸음을 뚝뚝뚝 걸어가길 생각한다.

身土不二 농축산물로 기부축매제 역할을 하자

발언대



배동언
구미교육원 교수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이외의 자자체를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이다.

기부금 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준다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기부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자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취약계층지원 등 주민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새해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유명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들이

‘기부 1호자’로 이름을 올리며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유명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前.유엔 사무총장도 일찌감치 1호 기부자가 되었다.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는 이색 답례품을 내놓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 맞으며 가장 실용적인 답례품은 바로, 身土不二. 지역 농축산물이다.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한 농축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듯이 고향을 위한 마음,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례품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양질의 농축산물 답례품, 내 고향의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복덩이인 것이다. 새해를 맞아 복덩이 하나씩 가져보길 권하는 바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입춘 절기 다음날인 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귀포=뉴스시스

독자투고

“北 무인기 사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테러 예방”

최근 북한은 미·북 관계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지난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7시간 동안 무인기를 남하시켜 서울 상공에서 비행을 감행하며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이 가진 탐지자산으로는 무인기를 100%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우리 영공으로 무인기보다 작은 적의 공격드론이 침공한다면 무인기 사태처럼 우리는 초기대응에 늦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안보와 테러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질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먼저, 테러 예방을 위해 국민분들께서는 테러대응 주관기관이 경찰인 것을 인지하여주시고 드론 등 테러의심 무인기가 보이면 112에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 경찰은 각 관할서에 편성되어 있는 ‘긴급현장상황반’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 등 임무를 수행하고, 교전·진압 등 전문적 대응과 후속지원은

경찰기동대·경찰특공대·지역 軍부대 등에서 맡는다.

또한 전국 경찰서 긴급현장상황반은 드론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 대테러 훈련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훈련 및 자체훈련을 통해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와 테러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유명진 <광산경찰 경비작전계 순경>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 전 편 천연가죽 리클라미니 쇼파석 (K/불식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톤다마켓 총창로점 062-222-7733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교섭/유령
2관	바빌론/교섭
3관	아바타:물의 길
4관	상견니/돌핀보이
5관	유령
6관	영웅/메간
7관	바빌론/유령
8관	영웅/메간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유령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전용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첫명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제휴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09:00-오후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차이유,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드림플러스화이스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가능(연말, 휴일, 대관 제외)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